

캐릭터들이여, 내러티브에서 독립하라!

민주적인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 씨>가 보여준
드라마의 새로운 재미

김자경

TV를 켜자 드라마가 나온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라마이지만 본 지 10분도 되지 않아 옛날의 내용에서 앞으로의 내용까지 일직선 도로처럼 머릿속에 펼쳐진다. 어떤 세부적인 사건들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어도, 주변인들보다 빼어나게 이름답고 착해 보이는 주인공들은 지나친 욕심으로 비호감을 자아내는 악역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사랑과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그 와중에 이들을 돕는 그림자 같은 조력자, 또는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은인이 나타날 것이고 온갖 우연과 행운의 요소들도 매복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끝을 알면서도 그 드라마를 본다. 왜? 이런 드라마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타도 재미있는 롤러코스터, 또는 여러 번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음식과도 같기 때문이다. 롤러코스터가 주는 재미나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 처음과 똑같다고 해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즐기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쾌감의 재생산’이기 때문이다.

익숙한 쾌감을 위한 대가: 폐쇄적인 내러티브가 낳은 비현실성과 식상함

드라마의 진행이 롤러코스터 트랙처럼 익숙한 정형성을 띠는 것은 그만큼 내러티브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단골 소재로 삼는 것들은 대개 정해져 있다.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온갖 반대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결혼, 주인공들에게 닥치는 끊임없는 불행에도 지속되는 연인 관계, 출생의 비밀, 삼각이나 사각 또는 그 이상으로 얽힌 애정 관계 등은 나름대로 새롭고 신선했다는 평을 듣는 드라마들에서도 하나 이상씩 예외 없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는 남장을 한 여주인공의 독특한 캐릭터와 동성애에 대한 열린 태도, 혼전 관계에 대한 담담한 시선 등 파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동시에 주요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사각관계의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재미도 들어 있었지만 드라마를 끌고 가는 주 동력원은 사각관계의 러브 라인이었고 이 러브 라인의 결론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내러티브상 이러한 설정들은 캐릭터가 가진 개성을 압도하여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진행을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문화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움'과 '익숙함'의 코드 중 안전한 투자 대상은 단연 후자이다. 익숙한 쾌감의 재생산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주기 때문이다. 산업에서 모호한 계약보다 명확한 계약이 유리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익숙함의 코드에 종속적인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은 익숙함의 코드를 위해 닫힌 내러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투명한 옷을 입은 듯 앞으로의 전개가 훤히 내다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시청률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날이 갈수록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미국 드라마나 케이블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결코 뉴미디어의 발달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산업적인 면에서도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돌파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러티브와 캐릭터의 관계이다. 내러티브와 캐릭터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둘은 상보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상충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내러티브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폐쇄성을 떨수록 캐릭터는 힘을 잃는다. 현실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내러티브에의 종속이 캐릭터의 활동 영역을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상파 드라마들은 한 회만 보아도 캐릭터들의 위계와 활동 범위,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드라마가 후반까지 진행되어도 초반에 설정된 주연-조연-엑스트라로 이어지는 인물 간의 위계는 공고하게 유지되며 선-악 또는 미-추의 대비구도 역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드라마 속에서 캐릭터란 내러티브를 창조해나가는 당사자들이라기보다, 내러티브라는 강력한 운명에 끌려가는 인형 같은 존재에 가깝다. 지상파 드라마들이 익숙한 매력을 무기로 아직도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비현실적’이라거나 ‘식상하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 세계는 하나의 선형적인 내러티브가 만들어내는 위계에 따라 캐릭터

들이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각자가 모두 인생의 주인공이며 제각각 다른 시선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모양새는 깔끔한 정물화라기보다는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처럼 기괴하고 다층적인 형상에 가깝다. 따라서 모든 캐릭터를 단일 내러티브에 종속시키는 이야기 구조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간의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나 행복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독특하게 풀어낼 캐릭터의 약화는 곧바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식상함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단일 내러티브의 독재를 깨라: 다양한 캐릭터를 통한 복합 내러티브의 구축

그렇다면 내러티브의 독재를 깨는 진보적인 이야기 구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케이블 채널 tvN이 제작한 시즌제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 씨>(이하 <영애 씨>)가 그것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애 씨>는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단일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복합적 내러티브를 성공적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캐릭터들을 좀 더 세심하게 조명하고 그들 각각의 관점에 존재하는 복수의 내러티브를 평등하게 반영한다. ‘평등하게’ 조명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없거나 모든 캐릭터가 똑같은 러닝타임을 차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애 씨>에도 주인공 영애를 중심으로 한 주연-조연-엑스트라의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관점 자체가 주인공 중심의 선형적 내러티브에 묶여 있지 않고 다른 캐릭터들의 세계관을 다채롭게 반영하는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캐릭터들은 적어도 관념적으로 평등하다. 조연과 엑스트라들이라 해도 주인공을 위한 단일한 내러티브, 이를테면

‘반대를 무릅쓴 결혼’과 같은 설정에 복무하기 위해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복합 내러티브 구성을 보여주었고 산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구성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2007년 시즌 1을 시작한 <영애 씨>는 현재 웬만한 미국 드라마 부럽지 않게 시즌 5까지 제작되면서 독보적인 케이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영애 씨>는 우리나라의 어느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입체적인 캐릭터 탐구와 그들 간의 다채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영애 씨>의 이런 새로운 면모들은 상당 부분 케이블 채널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각종 규제와 산업적 리스크를 더 크게 안고 있는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으로서, <영애 씨>는 지상파에서는 불가능했을 여러 시도들을 통해 독보적인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흥미진진하고 노골적인 제목, 배우의 인지도 보다는 작품 적합성을 따진 캐스팅,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새로운 형식 등은 케이블 채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시도들이다. 그러나 케이블 채널의 높은 자유도가 대부분 시청자들을 손쉽게 끌어올 수 있는 말초적 선정성으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영애 씨>의 성공은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이루어낸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애 씨>는 케이블뿐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완벽한 악인도, 영원한 강자도 없다: <막돼먹은 영애 씨>의 입체적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적 이야기

<영애 씨>는 주인공인 영애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영애의 상황과 심정을 반영하는 분량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관점은 ‘영애 중심적’이 아니다. 드라마는 영애를 ‘덩어리’라고 부르는 교양 없는 회사 상사를 비출 때도 단지 그의 우스꽝스럽고 못된 면만을 단편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심리적 변화 역시 포착한다. 이는 드라마 자체가 캐릭터들과 유지하는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체성 구현은 주인공 영애의 ‘막돼먹은’ 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춰 재미 요소를 찾던 초기 시즌보다 캐릭터들의 역사가 누적된 최근의 시즌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08년 4월 24일에 방영된 8회를 보면 이 드라마가 캐릭터들을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지를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시즌 5에서는 영애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변화를 겪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장이 팀장으로, 평사원들은 계약직으로 각각 직위가 하락하게 된다. 팀장이 되어버린 기존의 사장 위에는 이사가 군림하는데 이사는 이전까지 못된 상사로 여겨졌던 사장보다도 한술 더 뜨는 캐릭터이다. 8회에는 이런 이사가 사무실에 들어와 주인공 영애를 무시하는 듯한 농담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애를 아끼는 선배인 장 과장은 이사에게 “직원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면서 충고를 하고 이에 지레 눈치를 본 팀장, 즉 이전의 사장은 이사님께 대들지 말라며 장 과장에게 호통을 치게 된다. 그만하라는 이사의 말에도 과장된 호통을 계속하던 팀장은 그러나 오히려 이사에게 감히 이사 말을 무시하느냐는 야단을 맞고 된통 무안을 당한다. 이사가 나간 후 팀장은 직원들 앞에서

멋쩍게 웃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한다.

한 사무실 내에서 1~2분 사이에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드라마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다. 드라마 제목이나 ‘덩어리’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주인공 영애는 퀸카와 거리가 멀지만 드라마는 영애에게 가혹한 현실만을 그리지는 않는다. 다른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퀸카 낙원, 폭탄 지옥’의 평면적 세계를 그리는 데 반해 영애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도 종종 그를 아껴주는 주변인들의 보호를 받는다. 영애를 바라보는 캐릭터들의 관점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또한 과장-팀장-이사로 이어지는 권력의 먹이사슬은 이전 시즌까지 사장의 자리에서 절대 권력자로 보였던 팀장 또한 약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게다가 진심도 아니면서 과장에게 호통을 치는 팀장의 과장된 태도는 이기적 처세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을 보호하려는 나름의 배려로도 보인다. 팀장의 이런 이중적인 면모는 영애를 계속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직원 점수 10점 만점을 줬으니 정직원 되는 것 걱정 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극치를 이룬다. 캐릭터의 이런 이중성은 위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된다. 드라마 속 내레이션이 팀장을 ‘팀장’이라는 직함이 아닌 ‘형관’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며 진행된다는 것 역시 드라마가 각각의 캐릭터를 역동적인 내면을 지닌 인간으로 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이런 관점은 팀장뿐 아니라 영애의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 대부분의 캐릭터에 적용된다.

<영애 씨>의 연출은 캐릭터들이 이런 각자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며 진행된다. 주인공인 영애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표정연기를 통한 내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역동적인

심경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선보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캐릭터들은 특정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 나름의 개성대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에 맞게 인형극을 하지 않는다. <영애 씨>의 입체적 캐릭터들은 이 드라마가 별 특별한 소재 없이 비루한 현실을 그리면서도 재미있다는 평을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다.

입체적 캐릭터의 또 다른 힘: 물 만난 배우들

입체적 캐릭터 묘사는 드라마를 매우 풍부한 내용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입체적 캐릭터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영애 씨>는 비교적 제작 규모가 작은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인데다 스타급 탤런트들이 별로 출연하지 않는데도 지상파 드라마들에 비해 오히려 배우들의 연기 질이 매우 높고 그 톤도 고르다는 인상을 준다. 그다지 유명한 스타가 등장하지 않는데도 조연들까지 만족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저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연기라는 작업이 결국 대본이라는 텍스트를 통한 캐릭터 이해와 몰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캐릭터가 실감나고 잘 이해될수록 연기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입체적 캐릭터는 그 자체로 배우에게 힘을 실어준다. <영애 씨>의 풍부한 캐릭터 구축 역시 결국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끌어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선형적 내러티브에 종속된 드라마 조연들의 경우, 지나치게 캐리커처화된 캐릭터 때문에 깊은 연기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조연뿐 아니라 주연 역시 평면적 캐릭터에 묶여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들의 연기의 질이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드라마 시청자들이

가지는 큰 불만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영애 씨>처럼 배우들을 살리는 연출은 타 프로그램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캐릭터들이여, 내러티브에서 독립하라: ‘민주적’인 드라마의 힘

<영애 씨>는 민주적인 드라마다. 드라마를 두고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조연은 영원한 조연으로, 한 번 악역은 영원한 악역으로 고정되어 있는 주류 드라마들의 세계에 비해,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개성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영애 씨>의 세계는 그야말로 민주적이라는 표현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영애 씨>의 캐릭터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단일 내러티브에 종속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고 그들만의 역동성으로 사고하며 행동한다. 현실의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자유의지를 그들 역시 가지고 있다. 캐릭터들의 자유의지가 느껴지는 드라마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캐릭터의 관점에 따라 여러 방향의 이야기가 겹치게 되는 이런 복합 내러티브 구조는 근래에 들어 문화계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200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엘리펀트 (Elephant)> 같은 세칭 예술영화에서 최근에 개봉한 동화 원작 애니메이션 <작은 영웅 데스페로(The Tale of Despereaux)> 같은 아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장르와 주제의 엄청난 차이에도 복합 내러티브를 통해 단일 내러티브의 예측 가능한 폐쇄적 진행을 벗어났다. 이는 공통점을 지니며, 기존의 단순한 이야기 구조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영애 씨> 역시 우리나라의 기존 드라마와는 다르게 다양한 세상사를 담아냈다고 호평할 수 있다. 아울러 <영애 씨>의 새로운 매력은 단일 내러티브의 독재하에서 한계에 부딪치곤 하는 한국 드라마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준다. 복합 내러티브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막돼먹은 영애 씨>가 제목만큼 막돼먹은 사건을 자주 벌이지 않는 데도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다.